

영호남 풍습·정서 공유... 국민통합·개발 요충지



섬진강은 영호남의 혼재된 문화적 특성이 있어 관광·문화를 중심으로 한 개발을 통해 영호남 화합을 이룰 수 있는 곳이다. 사진은 구례 섬진강변 옛 철로를 활용한 레일 바이크의 모습.

맞 올리는 동서통합지대 화합의 江 섬진강

4 사회·경제적 특징

정부가 동서통합지대를 조성하고 있는 섬진강 일대는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깊은 곳이다. 영남과 호남 주민들이 섬진강을 넘나들며 살아온 삶이 묻어 있고, 섬진강 유역은 마한과 변한, 백제와 신라의 접경지대에 속해 수많은 전란을 겪었다.

또 왜구들이 섬진강을 따라 내륙으로 침탈했고, 정유재란 때의 의병운동, 조선후기의 농민항쟁과 동학농민운동, 일제강점기의 항일운동, 여순사건 등의 슬픈 역사도 간직하고 있다.

이런 역사가 담긴 섬진강은 호남과 영남의 접경에 위치해 있고, 남해안과 내륙산간을 연계할 수 있어 국민대통합 및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선도적인 프로젝트의 요충지가 될 수 있다.

특히 섬진강의 이런 지리·역사·경제적 특성을 잘 살려내는 것이 동서통합지대 조성 사업의 관건이다.

구례·하동 등 15개 시·군에 걸쳐

동학·여순사건 등 슬픈역사 간직

기반 시설 등 낙후도, 전국 최하위

◇역사의 강=섬진강은 국내에서 네 번째로 큰 강이며, 국토 서남권의 수자원 보고다. 전남 등 3개 도와 15개 시·군에 걸쳐 있는 섬진강의 자치단체별 유역면적 점유율은 전남 47.1%, 전북 43.5%, 경남 9.4%이다. 유역 면적 점유율로만 본다면 전라도가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하동 등 경남지역도 섬진강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섬진강은 지리적으로는 동쪽의 낙동강 유역과 서쪽의 영산강과 접해 있고 동진강, 만경강 유역의 중간지대에 위치해 있다.

또 섬진강 유역은 물이 풍부해 오래전부터 수자원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댐으로는 섬진강댐, 보성강댐, 동북댐, 주암댐, 상사댐이 있고 이들 댐들은 순천, 여수, 광양 등지에 물을 공급하고 있다.

섬진강의 풍부한 수자원은 광양만 주변의 광양제철소, 여수산업단지, 광양컨테이너부두 등의 산업시설에 공급된다. 섬진강은 전남 동부권을 살찌우는 젖줄인 셈이다.

또 섬진강댐과 보성강댐에서는 수력발전으로 전력을 생산하고, 서해안과 남해안의 간척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섬진강 유역에는 국립공원 제1호인 지리산을 비롯해 마이산, 백운산, 조계산(도립공원) 등의 산이 있고, 섬진강 수달서식지, 광양백운산 등지의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또 섬진강 구비에는 화양사, 송광사, 쌍계사 등의 고찰이 있고, 국가지정문화재 79점(국보 10점, 보물 51점, 사적 및 명승 9점, 천연기념물 9점)과 도지정문화재 242점 등 다수의 문화재가 있다. 섬진강을 긴 관광지도 아름답다. 구례관광특구를 비롯해 일실 사선대, 곡성 도립사, 지리산온천 등 지정관광지만 9개가 있다.

섬진강 유역은 농산물과 임산물도 풍부하고 은어, 참깨, 재첩 등 어족 자원이 다양해 향토음식문화도 발달해 있다.

섬진강은 예로부터 물이 깨끗하고 모래가 고운 하천으로 알려져 있다. 곡성에서 구례, 광양, 하동으로 이어지는 구간은 지리산과 함께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며 지리산 10경 중 섬진강을 '섬진청류'라 부른다.

조선 중기의 실학자인 이종환의 택리지에는 남원, 구례 등지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기름진 땅'이라고 했다.

◇전국적인 낙후 지역=빠어난 자연 환경에도 불구하고 섬진강 유역은 국내에서 가장 발달이 더딘 분류된다. 광양시를 제외한 유역 내 시·군의 인구감소율과 고령화율이 전국과 해당 도의 평균치보다 훨씬 높은 반면, 재정자립도는 낮다.

인구증가율(1992~2011년)은 보성 -1.97%, 임실 -1.93%, 순창 -1.71%, 곡성 -1.60%, 구례 -1.55% 등으로 되레 감소 추세다. 전국 평균 인구증가율 0.70%, 전남 -0.81%, 전북 -0.38%에 비해서도 감소 폭이 크다.

이들 지역의 고령화율도 심각하다. 지난 2010년 기준, 고령화율은 임실 37.7%, 보성 36.5%, 곡성 34.7%, 구례 33.1%이다. 전국 11.3%, 전남 20.4%, 전북 16.4%에 비해 고령화가 심각한 상태다.

인구가 줄고, 고령화 현상이 급속히 진행되면서 지역 경제는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2012년 재정자립도는 남원 8.3%, 순창 9.4%, 곡성 9.7%, 구례 10.2%이며 이는 전국 52.3%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치다.

인구, 경제 기반시설 등을 기준으로 한 지역낙후도 순위도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전국 170개 시·군 중 지역낙후도는 장수 166위, 구례 158위, 임실 156위, 곡성 144위, 하동 143위, 남원 132위였다.

섬진강 일대는 역사, 문화, 환경적인 가능성은 크지만 개발이 더디다는 뜻이다. 정부가 동서 통합을 위해 섬진강을 선택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영호남이 함께 잘 살기 위해 문화·관광 등의 사업을 중심으로 한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마음의 벽을 허물자는 것이다.

전남발전연구원 김종일 선임연구원은 "섬진강 일대에서는 영호남의 혼재된 문화적 특성이 있고, 이곳을 자연 생태와 역사문화 자원을 연계한 창조적 관광휴양지대로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옛 곡성역 등 섬진강변에는 관광 상품화 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가 깃들여 있다. 사진은 기차마을로 변신한 옛 곡성역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내 집 같은 편안함!

고객님의 여행과 휴식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하여 드립니다.



부담없습니다!

- 5~6만원대 중저가 비즈니스 호텔

편안합니다!

- 한밤 한밤 직접 웨어 정성껏 준비하는 깨끗한 침구
- 갖고 여행객, 비즈니스 출장객에게 더욱 좋습니다.

편리합니다!

- 광주역에서 도보 7분, 광주고속터미널차면 15분거리
- 전남대, 조선대, 교대, 아시아문화전당(구도청), 예술의 거리, 충장로 등 시내 주요 거점이 10거리
-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이 인접
- 전 객실 Free Wifi, 비즈니스센터, 한식당, 커피숍, 와인바, 연회장 등, 다양한 부대시설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www.geumsocjang.com

한해동안 보내주시는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2014년 새해에도 최선을 다해 고객님을 섬기는

금수장 관광호텔 아리랑 하우스가 되겠습니다.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정성을 다해 고객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우리음식 한정식으로 만남의 기쁨을 더 하십시오!

2014년 신년회
떡국식사
예약 접수중!

30년 전통의 한정식



-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 32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Coffee & Wine 카페 보네르 OPEN